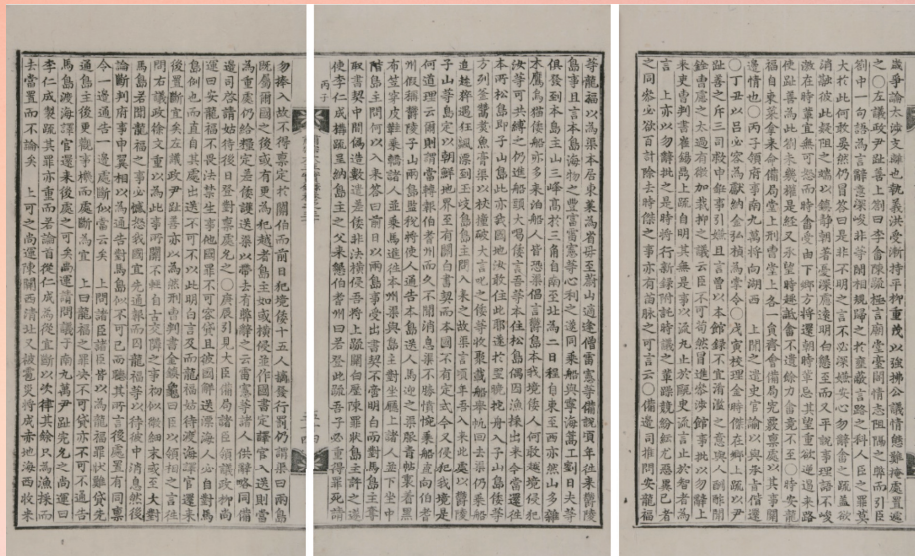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이다! 안용복 장군

ANNONGBOOK

글 박선경 정리 임숙영



안용복의 일본 행적 및 진술이 기록된 속종실록 30권 본문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1837년 일본 에도막부가 니가타 현에 세운
울릉도 도해 금지 경고판(竹島制札)
<출처: 국립해양박물관>

조선 후기 일본으로 두 번이나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증명한 사람, 바로 안용복이다. 부산 동래 수군 출신의 어부였던 안용복은 울릉도 파수꾼을 자임했다. 조선이 주요 섬 주민을 몰로 이주시킨 틈을 타 일본 어선이 울릉도 바다를 차지하는 등 불법어로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이다.

안용복이 울릉도를 처음 찾아간 것은 1693년이다. 고기잡이를 하던 일본 어선을 발견한 안용복은 당장 퇴거하라고 소리를 질렀다가 도리어 납치된다. 숫자에 밀려 저항할 수 없어 그냥 끌려가야만 했다. 돛토리 현에 도착한 안용복은 영주를 만나 울릉도는 조선 땅임을 알리고 어업 중단을 강하게 요구한다.

평소 부산 왜관(대마도인 거주지)을 드나들며 일본어를 익힌 덕에 대화에 막힘이 없었다. 울릉도가 조선 땅임을 확인하는 문서도 요구했다. 영주는 자기 권한 밖이라며 이를 중앙정부(막부)에 보고한다. 막부는 “울릉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는 편지를 써주도록 했다. 서신에는 섬 문제로 분쟁을 빚는 것은 옳지 않으니 불법어업을 중단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로써 울릉도 소유권을 굳히는 듯했으나 돌발 변수가 생긴다. 안용복이 귀국길에 대마도로 끌려가 편지를 빼앗긴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감금된 안용복은 고문까지 당해가며 고생하다 풀려난다. 그리고 대마도주는 일본의 영토인 죽도에 조선 어민의 출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계와 함께 안용복을 조선의 동래부로 송환했다.

당시 대마도와 동래 왜관에서의 구금기간에 대해 ‘조선왕조 실록’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성호사설’에서는 쓰시마에서 50일, 동래 왜관으로 압송되어 40일을 머무르다 동래부로 보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춘관지’는 쓰시마에서 “오랫동안”이라고 기간의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고, 동래부로 압송된 후 왜관에서 “전후 90일”을 갇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화국지’는 쓰시마에서만 90일을 갇혀 있었다고 하는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사이에 울릉도 해역은 일본 어선들이 다시 장악했다.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안용복은 1696년 선원 11명과 함께 다시 출동한다. 안용복은 감세관 형세를 하며 즉각 퇴거를 명령한다. 공직자 신분으로 위장한 전략은 주효했다. 일본 어부들이 반항 없이 달아난 것이다. 안용복은 이들을 쫓아 돛토리 현 영주를 만나 울릉도·독도가 조선의영토라고 말한다. 영주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울릉도와 독도 침범 어부를 처벌할 것을 약속한다. 안용복의 도향관련 문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이다. 정부 관리도 못하는 외교 성과를 노비가 거둔 것이다.

그런 안용복을 기다린 것은 포상이 아니라 처벌이었다. 강원도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돼 서울로 압송된다. 공직 사칭 및 공문서 위조, 국경 이탈 등 혐의로 목숨을 잃을 위기를 맞았다. 조선 조정은 사형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다. 영토를 지킨 공로를 고려하면 선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영의정 남구만은 역사적 쾌거라는 칭찬도 했다.

실학자 이익은 안용복을 영웅호걸로 치켜세웠다. 미친한 군인이 목숨을 걸고 오랜 분쟁을 끝내고 영토를 되찾은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1814년 정조가 지은 글을 모아 엮은 시문집인 ‘홍재전서’에서 정조도 안용복이 일본으로 하여금 다시는 울릉도를 넘보지 못하게 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1697년 당시 조정에서 안용복의 공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사형까지 시키려 했던 점에 아쉬움을 남겼다.

1954년 8월 16일 부산의 애국단체인 대동문교회에서 안용복을 ‘독전왕 안용복 장군’이라 칭하며, 장군으로 추존하는 의식을 거행했다. 이를 계기로 안용복 장군이라 칭하게 됐으며, 이후 그의 공적을 기리고 후세에 전승하기 위해 1957년 안용복 장군기념회가 발족되고, 1966년 사단법인 안용복 장군기념사업회가 결성됐다.

